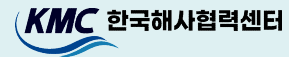


IMO 소식 & 국제해사동향



01

IMO 소식

GIA, 2024년 생물 다양성 보호와 탈탄소화 계획 수립



〈GIA, 2024년 생물 다양성 보호와 탈탄소화 계획 수립, 출처: IMO〉

- 해양생물안전글로벌산업연맹(GIA)*은 해양생물의 다양성 보호와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IMO의 주요 환경목표를 위해 2024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음.

* Global Industry Alliance for Marine Biosafety: IMO, GEF, UNDP가 공동 추진하는 글로파울링 파트너십 프로젝트(GloFouling Partnership Project)의 일환으로 2018년 12월에 출범한 민·관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선체부착생물 관리 를 통해 생물 다양성 보호 및 해운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

- ▶ GIA는 해운선사, 해양부착생물 관리기업, 연구기관, 선급협회 등 14개 회원기관 및 1개 옵서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난 2월 22일 개최된 2024년 첫 번째 GIA 회의에서는 올해 완료해야 할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 선박을 통한 외래침입종의 확산 및 마찰저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해 설명하는 30분 분량의 선체부착생물 다큐멘터리 제작
 - 2022년 GIA 발간물 검토 및 업데이트, 선체부착생물 관리와 관련된 현존 규제와 신규 규제 간, 표준과 관행 간 비교 분석 및 편집
 - 선박, 규제 가용성 및 격차, 위험 평가, 관리 및 선례,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등을 설명하는 항만 관점에서의 선체부착생물 관리에 대한 연구서 발간
 - 선체부착생물 수중청소의 결과에 따른 수질 변화에 관한 연구
- 한편, 방오도로 제조업체인 니폰페인트마린(Nippon Paint Marine)이 최근 GIA에 가입하였음. Gladys Goh NPM 대표는 “산업과 공공부문의 협업은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했음.
- 2024년 GIA 회의는 총 4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기 회의는 6월에 예정되어 있음.

김 현 중 영문에디터
kem5651@imkmc.or.kr

제11차 PPR 회의, 2025년까지 수중청소 지침서 개발에 합의

- 제11차 PPR 회의 주요 논의결과 정리 -

(출처 : IMO 홈페이지, '24. 3. 1.)

- 지난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IMO 제11차 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는 아래와 같이 총 18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특히 <의제 5>, <의제 10>, <의제 12>, <의제 13>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함.

의제 1	의제의 채택
의제 2	타 기구 결정사항
의제 3	선박운송 화학제품의 오염성·위해성 평가 및 IBC Code의 개정
의제 4	고점성 및 고용융점을 지닌 화물에 대한 화물창 스트리핑, 탱크세정 조작 및 예비세정의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MARPOL Annex II의 개정
의제 5	수중청소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서 개발
의제 6	국제해운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북극지방에 미치는 영향
의제 7	수질 환경에 배출되는 EGCS 배출수 평가 및 통일된 규칙과 지침 마련
의제 8	선박디젤엔진용 다중 엔진운전프로파일의 사용에 대한 MARPOL 부속서 VI 및 NOx Technical Code 개정안 개발
의제 9	지방정부 및 주요기관의 OPRC 협약 및 OPRC-HNS 의정서 시행을 위한 지역 차원의 해양유출 긴급계획 개발을 위한 모범사례 지침서 개발
의제 10	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유 사용 및 운반시,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기준 개발
의제 11	IBTS 지침서 검토와 IOPP 증서 및 기름기록부 개정
의제 12	MARPOL 부속서 IV와 관련 지침서의 개정
의제 13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치 계획의 후속 작업
의제 14	IMO 환경 관련 협약 조항들의 통일해석
의제 15	격년 의제 및 PPR 12 잠정 의제
의제 16	2025년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의제 17	기타 의제
의제 18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출 보고서

- 의제 5(수중청소 관련 사항에 대한 지침서 개발) 논의 결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수중청소 계획·수행·보고, 수중청소장비 및 수중청소서비스업자의 검증 등을 고려한 「수중청소 지침서」 초안 개발을 위한 회기간 실무작업반 개설에 합의함.

- 의제 10(북극해에서 선박의 중유 사용 및 운반 시,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기준 개발) 논의 결과, 작업반 회의를 통해 블랙카본 관련 2개의 지침서 (①목표 기반의 블랙카본 통제에 관한 모범사례 지침서, ②블랙카본 데이터 측정·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지침) 개발을 완료함.
 - ▶ 개발된 지침서는 IMO 제82차 해양환경위원회(MEPC)에 채택을 요청하기로 함.
- 의제 12(MARPOL 부속서 IV와 관련 지침서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MARPOL 부속서 IV 및 관련 지침서 개정을 위한 작업 일정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을 수립함.
 - ① 형식승인 시험기준 개정작업 완료 (PPR 13, 2026년)
 - ② MARPOL 부속서 IV 및 시행지침의 개정작업 완료 (PPR 15, 2028년)
 - ③ 개발된 모든 개정안에 대한 승인 및 채택 (MEPC 89, 2029년)
 - ▶ 또한, 원활한 개정작업을 위해 회기간 실무작업반 개설을 결정하고, 아래와 같은 위임사항을 정함.
 - ① 분뇨처리장치의 배출기준 및 성능시험 이행에 관한 2012 지침 개정(안) 개발
 - ② MARPOL 부속서 IV의 이행지침 개발
 - ③ 오수관리 계획서 및 오수 기록부에 대한 MARPOL 부속서 IV 및 관련 지침 개정(안) 개발
- 의제 13(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조치 계획의 후속 작업) 논의 결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의 주요 원인인 유실 어구와 관련하여 '유실어구 보고 제도' 개발을 위해 데이터 수집 목적을 결정하고, 어선에서 발생한 어구 유실사고가 연안국(coastal state)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연안국 보고 여부에 대해 차기 PPR 12에서 논의하기로 함.
 - ▶ 유실어구 보고 절차 및 항목 등의 논의를 지속하기 위한 회기 간 실무작업반 개설에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ToR)을 정함.
 - ① 당사국의 행정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현존 국제규정(MARPOL 협약,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규정 등)을 검토하여 IMO 보고 규정의 중복사항 식별
 - ② ①의 결과를 기반으로 유실 어구와 관련한 의무적·자발적 보고 항목 식별
 - ▶ 또한, 화물 컨테이너로 해상 운송되는 플라스틱 펠릿의 운송규제를 위한 MEPC 회람문서 최종안을 마련하였으며, MEPC 81('24.3)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함.

02

국제해사동향

EU ETS 시행에 따른 해운업계의 도전과제 증가

(출처 : Lloyd's List, '24.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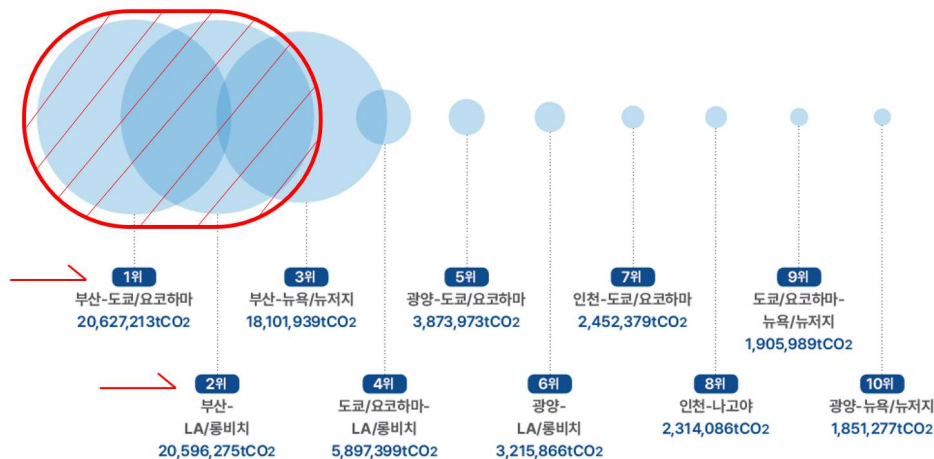
-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타 규정 준수에 필요한 데이터를 매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EU 배출가스 거래제(EU ETS)가 불명확한 규정과 필수적인 규정 준수를 위한 인프라 부족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 해운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는 ETS의 불명확한 규정, EU 허용량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필수계약인 연합등록부(Union Registry) 계좌 개설의 어려움, 거래 당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꼽혔음.
- 2023년 12월에 ETS 용선계약 조항이 늦게 도입되면서 거래 및 규정 준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벌크선사들은 중요한 조항에 합의하지 못하여 "용선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로 묘사되는 위험에 처하게 됨.
- 한편으로는 산업 수요 감소, 재생 에너지 사용 증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같은 요인이 최근 가격 폭락에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배출권(EUA, EU Allowances) 가격의 주요 단점인 예측의 어려움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시각도 있음.
 - *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
 - ▶ 외환시장의 변동성(10% 내외)보다 월등히 높은 EUA의 시장 변동성(44%)으로 인해 화주들은 현물시장 거래에 참여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제시됨.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운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2~3개월 동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운업의 역사적 적응력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본다면, 해운업계가 이 난관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것이다"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박다영 연구원
iris23@imkmc.or.kr

기후솔루션(SFOC), 한·미·일 녹색해운항로 잠재성 및 탈탄소화 협력 강조

(출처 : Marine Insight, '24. 2. 14.)

- 2024년 2월,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SFOC)가 발간한 보고서(Achieving Net Zero in International Shipping through Korea-US- Japan Green Shipping Corridor)는 한·미·일 3국의 주요 컨테이너 항로의 CO₂ 배출량 분석을 기반으로 3국 연합 녹색해운항로 구축의 잠재성 및 기대효과를 전망함.
- ▶ 이 보고서에서는 부산-도쿄 항로와 부산-LA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들이 무탄소 연료로 전환 시 연간 CO₂ 배출량을 각각 2,063만톤과 2,060만톤 감축할 수 있다고 예측함.



〈한·미·일 녹색해운항로 구축시 항로별 CO₂ 배출량 감축 전망치, 출처: SFOC 보고서〉

- 기후솔루션(SFOC)은 녹색해운항로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탈탄소화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음을 언급하며, 추진 중인 여러 탈탄소화 정책을 환경보전 측면과 더불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함.
- 또한, 기후솔루션(SFOC)은 “2023 IMO 온실가스 전략으로는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이 파리협정의 1.5℃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ICCT)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항만 간 친환경연료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등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힘.

황 대 중 전문연구원
hdaejung@imkmc.or.kr

싱가포르 해기사협회, 대체연료 관련 선원교육에 투자

(출처 : Seatrade Maritime News, '24.2.29.)

- 선주들이 이중연료 추진선박(dual-fuel vessels)에 투자를 시작하면서 대체연료 취급 관련 선원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싱가포르 해기사협회(SMOU, Singapore Maritime Officers Union)는 산하 교육기관인 '웨이브링크 해사 시뮬레이션 센터'에 275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27억 원)를 투자함.
 - ▶ 동 센터는 VR 기반의 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차세대 연료(메탄올, 암모니아 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도록 설계됨.



〈웨이브링크 해사 시뮬레이션 센터 출범식, 출처: Seatrade Maritime News〉

- 웨이브링크 해사 시뮬레이션 센터 출범식에서 Grace Fu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장관(Singapore Minister for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은 “지속가능한 해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운산업의 핵심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해운업계의 포괄적인 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사인력의 준비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Stephen Cotton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사무총장은 기초연설을 통해 기존 해사인력에 대한 기술교육 전환에 있어서 어떤 연료를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함.
 - ▶ ITF가 소속된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Just Transition Taskforce)가 의뢰한 DNV Maritime 연구에 따르면 재교육이 필요한 해사인력은 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안삼엘 연구원

samela@imkmc.or.kr